

보도시점 2026. 10. 12.(월) 09:30 (2026. 10. 12.(월) 석간)

폭염 지나간 택배 현장 가을철 화재 예방으로 안전 이어간다

- 택배 현장에 소화기 500개 전달
- 관할 소방서와 화재 예방 안전교육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10월 12일(월), 서울 송파구 롯데택배 동남권 센터를 방문하여 택배기사 및 물류센터 종사자와 함께 「가을철 화재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재단이 연중 추진하는 찾아가는 권익보호 활동 ‘안전이음 프로젝트’의 하나다. 재단은 지난 여름 폭염에 노출된 택배·물류센터 노동자에게 생수를 나누고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벌인 데 이어, 건조한 가을철 커지는 화재 위험에 미리 대응하고자 이번 활동을 마련했다.

재단은 “가을은 청명, 안전은 맑음”이라는 슬로건 아래 취약노동자 건강상담, 이동노동자 이륜차 안전 점검, 화재 예방 안전물품 지원 등 가을철 위험요인에 맞춘 현장 밀착형 안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재단은 건조한 날씨와 물동량 증가로 인한 운송 차량 과부하 등 화재 위험 요인을 미리 줄이기 위해 현장 노동자들에게 차량용 소화기 500개를 전달했다. 이어 관할 소방서와 함께 물류센터 시설물 관리와 운송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진행하며 현장 노동자들의 화재·산재 예방 의식을 높였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택배산업노동조합(한국노총)과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 등 택배사 노사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택배 현장의 화재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뜻을 모았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택배·물류 현장의 안전과 화재 예방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핵심 과제”라며 “작은 위험 요소도 놓치지 않고 예방해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앞으로도 현장 맞춤형 밀착 안전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노사발전재단 노동권익증진팀	책임자	팀 장	마계희 (02-6021-1065)
		담당자	선임전문위원	라승혁 (02-6021-1121)

